▶ 뉴스 인쇄

제목 BCG 평가에서 한국 기업 점점 찾기 힘들다?

작성자 이미연 작성일 2015/08/05

보스턴컨설팅그룹(이하 BCG)이 17년간 평가해 오고 있는 전세계 가치창출기업 순위에서 한국 기업의 이름을 찾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올해는 국내 기업 2곳이 겨우 이름을 올렸다. 전세계 27개 업종, 1982개 기업의 최근 5년간 평균 TSR(Total Shareholder Return, 총주주수익률)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4일 BCG의 '2015년 가치창출보고서(Value creation for the rest of us)'에 따르면 가장 높은 TSR(총주주수익률)을 기록한 기업은 미국 바이오테크 업체 파마사이클릭스였다. 이 회사는 무려 세 자릿수의 연평균 TSR을 기록, 2013년부터 3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이번 조사는 전세계 27개 업종, 1982개 기업의 최근 5년간 평균 기준)글로벌 시장에서는 바이오테크 및 제약산업의 활황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글로벌 top10 중 4곳, 시총 500억 달러 이상을 대상으로 한 라지캡 top10 중 5곳이 바이오제약 업종 기업이었다.

9년 연속 라지캡 top 10에 들었던 애플은 처음으로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다.(IT업종 순위에서는 8위에 랭크)지역적으로는 미국 기업의 강세가 두드러졌으며 중국 기업들이 대거 순위에서 사라졌다.

BCG는 올해 상위권에 든 기업의 대부분이 해당 업종의 호황, 기업 규모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좋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게리 한셀(Gary Hansell) BCG 시카고 오피스 시니어 파트너는 "업황이나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해당업계 평균을 뛰어넘는 성과를 내는 기업도 있다"며 "중요한 것은 기업 TSR 성과의 절대값이 아니라 동종업계 경쟁사 대비 상대적 성과"라고 분석했다.

BCG는 이 같은 기업의 예로 글로벌 1위 해운업체인 덴마크 머스크그룹과 미국 주택건설업체 펄트그룹을 들었다. 이들은 영위하는 사업의 시황이 극심한 불황에 시달릴 때 기업의 체질을 확 바꾸는 트랜스포메이션을 단행한 기업들이다. 덕분에 머스크그룹의 최근 5년간 TSR은 13.3%를 기록한 반면 같은 기간 여전히 불황에 시달리는 글로벌 해운업계 평균 TSR은 2.3%에 그쳤다.

한편 올해 조사에서 한국 기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글로벌 top 10에 한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그나마 업종별 top 10에 국내 기업 2곳이 순위에 들었다. 2012년 조사 전후로는 다수의 국내기업이 상위권에 올랐으나, 2014년 조사 이후 랭킹에서 한국기업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업종별 top 10에 들어간 기업은 고려아연(5년간 TSR 평균 16.3%)과 아이에스동서(59.7%) 두 곳이다. 고려아연은 올해 금속업종 부문에서 8위를 차지하며 4년 연속 상위권을 유지했다.

아이에스동서는 건설부문 2위로, 처음 순위에 진입했다. 2012년에는 모두 18개의 한국 기업이 순위에 들었으나, 이후 각 부문별로 top10 에 드는 기업의 숫자는 4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김도원 보스턴컨설팅그룹 서울오피스 대표는 "과거 우리 기업은 미국의 소비와 중국 경제의 성장에 힘입어 활황을 누렸지만, 이런 효과가 사라진 지금 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인더스트리 4.0 등 영역별로 미래의 파괴적 기회를 선점, 근원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몸인쇄

닫기